

EU 세계 농산물시장 전망

2005년 12월 중순 홍콩에서의 WTO 각료 회의 직후 EU 집행위원회는 세계 농산물시장 향후 10년간의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EU의 세계 농산물시장 전망보고서는 주로 OECD, FAO, FAPRI(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¹⁾가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이 중, 곡물, 쌀, 낙농제품에 대한 EU의 세계 시장전망을 소개한다.

1. 거시경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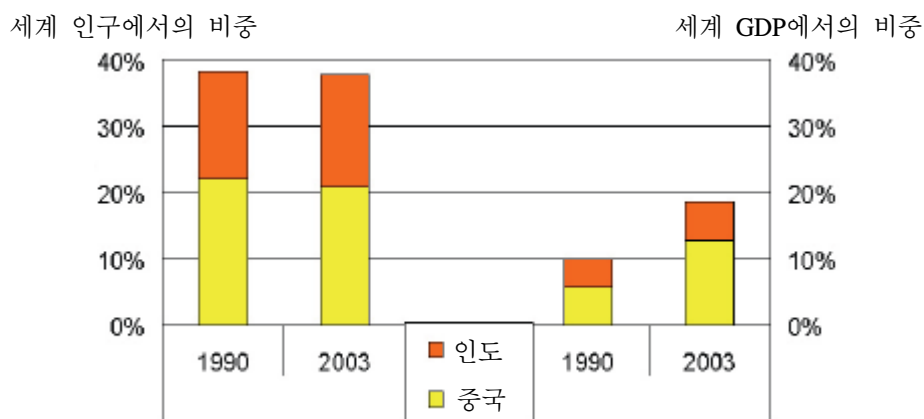
세계 농산물 시장 전망에 영향을 주는 많은 거시경제적 요인들 중에서도 인구, 환율, GDP 성장률의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인구’이다. 그 다음으로는 GDP 성장률인데,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측된다기보다는 가정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환율은 농산물 수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신뢰할만한 정도로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EU의 세계 농산물 시장 전망 자료에서는 위의 세 가지 요인들을 상세히 분석하기 보다는 1990년대 이후로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그래프로 제

1) 미 의회에 경제 전망 및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으로 미주리-콜롬비아 대학과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소재하고 있다.

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 ‘중요한 변화’란 바로 중국과 인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 세계 인구 및 GDP에 있어 중국과 인도의 비중



<그림 1>은 세계 인구에 있어서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는 1990년대 이후 약간 증가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1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가 세계 농산물 시장에 끼칠 영향은 아직까지는 공산품 등 다른 부문의 세계 무역시장에 끼칠 영향에 비하면 아주 작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GDP 성장은 장래의 세계 농산물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2. 곡물 부문

전 세계적으로 곡물 소비량과 생산량은 약 13억 톤에서 14억 톤 사이에 머무는 것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쌀을 제외한) 곡물은 생산량으로 보나 교

역량으로 보나 경종작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다. 특히 밀과 옥수수가 가장 중요한데, 이 두 작물은 세계 곡물 무역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크기 때문에 세계 곡물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 같다. 연간 곡물 소비 증가율은 1980~92년 사이에 1.2%였던 것이 1992~02년 동안에는 0.8%로 감소했다. 그와 동시에 1인당 곡물 소비량 또한 감소했는데, 이는 특히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수준의 곡물 소비 증가율은 세계 인구성장율을 밑도는 것이다. 곡물 생산은 일반적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를 뒤따라간다. 수확량 증가는 소비량 증가를 뒤따라가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하면서도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마다 곡물 생산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예를 들어 북 아메리카와 유럽 지역에서의 곡물 생산성은 아프리카 지역에 비교할 때 1980년에 약 3배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5배 이상 높다.

곡물 무역량은 2억 톤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변화 동향이 분명하게 예측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곡물 수출국인 미국은 최근 여러 해 동안 시장을 잃어왔다. 그런데 EU의 시장 점유율은 그보다 더욱 많이 감소했다. 아르헨티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같은 미국과 EU를 제외한 전통적인 곡물 수출국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

2.1. 밀

밀은 통상적인 수준의 곡물 소비 및 생산량 중 45%(약 6억 톤)을 차지한다. 1인당 밀 소비량은 1980~92년 사이에는 증가했으나 1992~02년의 기간 동안에는 감소했다. EU의 밀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최근의 세계 밀 소비량 감소 추세는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EU의 밀 소비량은 사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간 소비 증가율이 1980~92년 사이에는 1.1%였던 것이

1992~02년 동안에는 3.8%로 매우 높아졌다.

연간 밀 생산 증가율은 서서히 낮아져왔다. 1980~92년 기간 동안에는 2.6%였던 것이, 1992~02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1.1%를 기록했다. 특히 북 아메리카와 중국에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세계 곡물 무역 시장에서 밀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다른 모든 종류의 곡물들에 비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조금씩 커지고 있다. 밀 교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EU와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흑해 연안 국가들이 새로운 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2. 옥수수

세계 옥수수 소비 및 생산량은 통상적으로 6억 2,000만 톤에서 6억 5,000만 톤 사이의 규모에 머물고 있다. 이는 물량으로만 따질 때 밀보다 약간 많은 것이다. 그러나 밀과 달리 1인당 옥수수 소비량은 1980년에서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내내 증가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세계 전역에서 관찰된다. 심지어 1980~92년 사이에 연간 옥수수 소비량이 감소했던 EU에서조차도(-2.8%), 1992~04년 동안에는 연간 옥수수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다(3.7%).

지속적인 옥수수 품종 개량이 성공을 거두면서 1992~04년 사이에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 재배가 도입됨으로써 다른 종류의 곡물 사료 작물에 비해 옥수수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확량 증가가 소비 증가를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옥수수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옥수수 생산량 증가가 가장 컸던 곳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이다.

2.3 보리

밀과 옥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곡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은 보리이다. 보리는 수요 측면에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맥아 수요의 비중이 줄고 사료용 보리 수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세계 보리 생산 및 소비량은 약 1억 6,000만 톤 정도였다. 1986~87년간에는 이것이 1억 8,000만 톤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해왔다. 세계 보리 생산의 위축은 1999~00년간에 1억 3,000만 톤 수준에서 바닥을 치고 그 이후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까지 1인당 보리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보리 수확량은 매년 1.2% 증가하고 있어 소비 감소에 대응하는 생산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EU와 러시아 지역에서 보리 생산 면적이 줄어들었다.

2.4. 곡물시장 전망

세계 밀 교역량이 생산량이나 소비량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밀 생산량 중 교역되는 밀의 비중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OECD와 FAPRI는 동의하고 있다. 세계 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OECD의 전망치는 FAPRI의 전망치에 비해 더 역동적인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향후 10년간의 밀 가격 변화는 과거 10년간 상승한 것보다 약간 더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OECD는 현재 2,500만 톤에 머물고 있는 미국의 밀 수출량이 2014년에는 3,30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반면에, FAPRI는 미국의 밀 수출 증가가 정체되어 2014년에는 약 2,600만 톤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밀 수출 국가들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예측치가 일치하고 있다. 2004~05년간에 1,800만~1,900만 톤을 수출했던 오스트레일리아가 2014년에는 2,200~2,300만 톤의 밀을 수출할 수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밀 수출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밀 수출 또한 크게 증가하여 2004~05년간에는 900~1,000만 톤이었던 것

이 2014~15년간에는 1,000~1,5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EU는 예측 기간 동안 내내 1,000~1,200만 톤 정도만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4년 전에 밀 순수출국가가 되었다. OECD와 FAPRI는 러시아가 700~800만 톤(OECD) 또는 500~600만 톤(FAPRI)을 수출하는 수출국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여타 동유럽 국가들도 300~400만 톤에 달하는 현재 수준의 밀 수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100~150만 톤 규모의 밀을 수출하는 인도에 대한 전망은 OECD와 FAPRI의 예측이 엇갈린다. OECD는 인도가 지금과 같은 위치를 유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FAPRI는 인도의 밀 수출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예상 밀 수출량 중 절반 정도는 브라질의 수입 수요에 의해 흡수될 수 있다. 브라질의 밀 수입 수요는 현재 480만 톤 규모에서 2014~15년간에는 680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FAPRI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OECD는 770만 톤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 또한 현재 350만 톤 규모에 달하는 밀 수입을 2014년에는 450만 톤(FAPRI) 또는 550만 톤(OECD)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밀 수입 규모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700만 톤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FAPRI는 예측하고 있다. 한편, OECD는 연평균 85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곡류에 대해 OECD의 전망은 FAPRI의 그것에 비해 더 낙관적이다. OECD는 세계 조곡 소비와 생산이 각각 1.5%와 1.4% 증가할 것이며 세계 조곡 교역량은 연간 3.0%(2,700만 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FAPRI는 소비와 생산이 각각 1.2%와 1.1% 증가할 것이며 교역량은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의 조곡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세계 조곡 무역에 있어 그 지배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며 상당한 정도로 수출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조곡 교역량에 대한 OECD의 예측치는 2014년 말에는 6,600만 톤 규모이다. FAPRI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상치(7,500만 톤)를 제시하고 있다. OECD와 FAPRI 모두 아르헨티나의 조곡 수출 규모가 10년 뒤에는 1,500~1,6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조곡 수출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될 것임을 뜻한다.

브라질에 대해서는 향후의 무역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의 무역량에 대해서도 OECD와 FAPRI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FAPRI는 브라질의 공식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에 브라질이 조곡 수출국가가 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OECD는 브라질이 여전히 조곡 수입국가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 결과 두 기관이 내놓은 브라질의 곡물 무역 예측 자료는 판이하게 다르다.

3. 쌀

쌀은 중요한 곡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쌀 무역량은 세계 농산물 무역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및 소비 국가들이 아시아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와 비아시아권 국가들 간의 1인당 쌀 소비량은 크게 차이난다. 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40kg인데 비해, 미국은 20kg, EU는 10kg에 불과하다.

연간 쌀 소비 증가율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 동안 2.7%였던 것이 크게 하락하여 최근에는 1.2%에 이르고 있다. 세계 최대의 쌀 소비국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위치한 아시아의 쌀 소비 증가율은 세계 평균 쌀 소비 증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과 타이에서는 쌀의 총 소비량과 1인당 쌀 소비량 모두 감소했는데,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총

소비량이 각각 2.1%와 1.7% 증가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연간 쌀 소비량 증가율은 3.0%로 무척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를 고려한 1인당 쌀 소비 증가율은 0.5%에 불과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에서의 안정적인 쌀 소비량 변화가 전체적인 동향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북 아메리카에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증가해 왔으나, 1992년 이후로 그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EU에서 쌀의 총 소비량과 1인당 소비량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2% 성장해왔다.

쌀의 경우, 주도적인 소비 국가들이 주도적인 생산 국가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쌀 생산은 매년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생산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쌀 생산량은 최근 들어 그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1980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 동안 쌀 생산량은 연평균 2.4% 증가를 기록했으나 최근의 증가율은 1.1%에 머물고 있다. 쌀 생산 증가는 수확량 증대의 결과이다. 특히 1980년부터 1992년 사이에 그 같은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졌다.

세계의 주요 쌀 생산국들 사이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타이의 쌀 생산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소폭의 증가 추이가 관찰되는데 비해, 중국과 일본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쌀 생산량이 오히려 감소했다. 아프리카의 쌀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3%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면적 당 수확량은 1992년 이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이 지난 12년간 가장 큰 폭의 쌀 생산 증가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연간 쌀 생산량은 1992년부터 2004년 사이의 기간 동안 소폭 증가했다. 이는 주로 1998년 이후부터의 단위면적 당 쌀 수확량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한편, EU의 연 평균 쌀 생산 증가율은 2% 미만 수준에 머

물고 있다.

쌀 무역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쌀 무역 증가분은 여전히 쌀 소비량 상위 5개국의 쌀 생산량 중 7%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수출 측면에서 아시아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또한 중요한 쌀 수출국가이다. 타이는 2003년에 1,000만 톤의 쌀 수출을 기록했는데, 주도적인 수출국가로서의 지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인도와 베트남은 1990년대 초반에 쌀 순수출국이 되었다. 인도의 쌀 수출량은 100만 톤에서 600만 톤 규모 사이에서 크게 유동하고 있다. 베트남의 쌀 수출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에 400만 톤에 달했다. 중국은 1997년 이후 연간 200만~300만 톤의 쌀을 수출하는 수출국가의 지위에 올랐으나, 최근에는 수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의 쌀 수출은 300만 톤 규모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쌀 수입규모 상위 5개국 중 나이지리아만이 비아시아권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해 동안 주요 쌀 수입국가였다. 그러나 그 수입규모는 70만 톤에서 600만 톤 규모 사이에서 지난 10년간 해마다 크게 변동했다. 나이지리아의 쌀 수입 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200만 톤 규모에 달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이지리아는 필리핀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쌀 수입국이 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이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연간 100만 톤 규모에 가까운 쌀을 수입했다.

FAPRI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권 국가들에서의 도시화, 소득 향상, 음식의 다양화 추세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쌀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생산은 세계 쌀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쌀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되는 쌀 수출 규모 증가의 대부분은 타이와 월남의 수출 증가 때문 일 것이다. 한편, 인도의 쌀 수출 증가추세는 멈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현재의 수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쌀 수출국가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0년 대에 달성했던 수출 규모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인도네시아의 쌀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10년 뒤에는 400만 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의 쌀 수입도 증가 추세를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의 쌀 수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나이지리아와 방글라데시의 쌀 수입 규모는 2014년 쯤에는 각각 200 만 톤 규모에 달할 것이다. 필리핀,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이란의 쌀 수입은 2014년에는 15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낙농 제품

유럽은 지구상에서 지난 20년간 우유 생산량이 감소한 유일한 대륙이다 (8% 감소). 이는 주로 EU의 우유 생산 쿼터제 때문이다. 다른 모든 대륙에서는 우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의 우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대부분 인도의 우유 생산량이 세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아시아 대륙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절반 가까이 생산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우유 생산량 또한 2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우유 생산량은 같은 기간 75% 증가했으며, 북아메리카의 경우 30% 증가했다. 우유의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의 주요 1차 낙농제품 무역을 분석할 수 있다.

4.1. 버터

세계 버터 소비량은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다소 증

가했다. 유럽의 버터 소비량은 1992년에서 2002년 사이에 실제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아시아에서의 버터 소비량은 크게 증가했다. 양으로 볼 때 아시아에서의 버터 소비량은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유럽의 소비량을 앞질렀다. 아시아의 전체 버터 소비량 중 2/3가 인도에서 소비되고 있다.

오세아니아 대륙만 예외로 하고, 버터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계속 감소해왔다. 그리하여 버터의 수출 가능성이 크게 증가해왔다. 세계 버터 무역은 1980년대 후반에 정점에 달했는데, 이 당시 EU의 버터 수출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계 버터 무역량의 2/3를 EU가 수출했다. 그 이후 세계 버터 무역량은 EU의 수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지금은 뉴질랜드가 세계 최대의 버터 수출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전 세계 버터 수출량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약 80만 톤).

4.2. 탈지 분유

탈지 분유와 전지 분유의 세계 생산량 및 소비량은 대략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에서의 탈지분유 소비는 감소했으나, 아시아에서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북 아메리카에서도 소폭이나마 소비량이 증가했다. 한때 EU는 세계 최대의 탈지분유 수출국이었지만, 지금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의 뒤를 이어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생산하는 탈지분유는 대개 아시아권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다.

4.3. 전지 분유

전지 분유 소비량의 분포는 탈지 분유 소비량의 분포와는 차이가 난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이 가장 많은 양의 전지 분유를 소비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세계 전지분유 소비량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로 변화하지 않았다. 유럽에서의 소비량이 감소했으나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소비량이 그만큼 증가했다. 오세아

니아 대륙에서 수출되는 전지 분유가 세계 무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EU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여 지금은 1/3에 이르고 있다.

4.4. 치즈

세계 치즈 소비량은 현재 1,700~1,800만 톤 규모에 달하는데, 주로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은 세계 치즈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 아메리카 지역은 대략 4분의 1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와는 달리 치즈는 그 소비량이 세계 전역에서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치즈 무역량(현재 100만 톤)은 빠른 증가를 보여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EU가 그와 같은 무역 증가를 주도했으나, 그 이후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수출이 증가하여 이 두 나라의 수출량이 세계 치즈 수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EU의 낙농 제품 수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버터, 분유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치즈 수출은 상당히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4.5. 낙농제품시장 전망

OECD와 FAPRI는 낙농 제품에 대한 지구적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 주요 지역에서의 소득 증가와 소비자 선호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주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우유 생산량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1.2~1.9%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미가입국들과 OECD 가입국 중 우유 생산 쿼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수요 증대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OECD 가입국들에서의 낙농 제품 소비는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치즈는 제외). 개발도상국들에서 낙농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가들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식사 문화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수요의 상당 부분은 국내 생산을 통해 충족될 것이지만, 추가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와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 낙농 제품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유 성분의 급격한 개선을 낳는 기술 진보 또한 예상된다.

세계적인 낙농 제품 소비 증가에 힘입어, 2004년에 정점에 달했던 치즈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FAPRI와 OECD는 분유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전망을 달리하고 있다. FAPRI는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가격이 향후 10년 사이에 각각 18%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OECD는 2004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APRI는 2005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버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에는 2,000\$/ton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OECD는 버터 가격이 2004년 수준(1,870\$/ton)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결론

향후 10년 동안에 대한 세계 농산물 무역 전망 자료를 통해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EU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곡물과 쇠고기의 잉여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 개혁과 낙농, 설탕 부문의 생산량 안정을 피하기 위한 쿼터제 유지로 인해 예상되

는 당연한 결과이다. 벌크 형태의 농산물 무역 시장에서 EU는 점점 받을
빼서 고부가가치 농산물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신장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에 대한 예상은 다소 엇갈린다. 미국은 벌크 상품 수출국으로서 중
요한 위치를 유지하겠지만, 밀과 콩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옥수수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면화 시장 점유율은 증가할 것이며, 육류 수출 규모도 증가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부분의 상품에 있어 수출 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다.
뉴질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도 더 빠른 속도의 수출 증가를 경험했는
데, 제한된 범위의 상품(특히, 낙농 제품과 양고기)에 있어서는 매우 빠른
수출 증가를 보일 것이다. 캐다다는 안정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수출 점유
율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세계 농산물 무역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분명히 개발도상국에
서 일어날 것이다. 특히 브라질, 중국, 인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인구로 보나 GDP로 보나 중국이나 인도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농산물 무역 시장 개척에 있어서는 오히려 앞서가는 국가이다. 콩,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설탕, 면화 등의 수출 증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
게 될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다. 브라질은 이러한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브라질의 수출 증가가 세계 농산물 무역 시장에 몰고 올 효과
는 어떤 것일까?

한편,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브라질과는 정 반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
한 위치에 있다. 중국은 브라질이 수출 증가를 기록했던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 상당한 규모의 수입 증가를 기록했다. 브라질에 대해 던졌던 것과 같
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증
가한다면, 세계 농산물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인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중요한 국가이다. 인도는 많은 경종 작물과 우유의 주요 생산 국가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세 구조 때문에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은 국가이다. 하지만 인도의 GDP는 매우 크게 증가하여 그것이 식품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공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 몇몇 품목의 경우 수출 가능성도 크게 있다. 인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따라 세계 농산물 무역 시장의 미래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자료: EUROSTAT

(김정섭 jskkjs@empal.com 010-7339-254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